

호남 6개 철도건설 6000억 투입

철도시설공단, 지역경기 활성화 위해 상반기 사업비 62% 투입
목포~송정역 호남고속철 2단계·무안~보성 건설사업 등 포함

2020년 광주·전라지역 6개 고속·일반철도 건설 사업에 60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목포와 광주 송정역을 잇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과 보성을 잇는 일반철도 건설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6031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총 사업비의 61.5%에 달하는 3709억원이 우선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본부는 올해 이 같은 철도사업으로 5549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조 243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호남지역 올해 주요 철도사업

사업명	기간	예산
호남고속 1단계 평화육교 개체공사	~2021년	192
호남고속 2단계 (고막원~목포)	~2025년	900
임성리~보성 철도건설	~2022년	4000
대야~익산 복선전철	~2021년	360
군장산단 인입철도	~2021년	320
광양~진주 전철화	~2021년	259

입, 여객시설 면적을 기존 640㎡에서 1220㎡로 2배 가까이 확대하고 교동역사 등 이용객의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이 밖에 군장산단 11km 길이의 대야-익산 단선구간에 대한 복선전철화 사업도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본부는 오는 5월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사전점검 등 종합시험운행에 착수, 오는 11월 개통에 나설 예정이다.

호남본부는 또 대야역에서 군장산을 연결하는 29km 길이의 단선철도 공사인 일명 군장산단 사업에도 올해 사업비 320억을 투입한다. 현재 교량 12곳과 터널 2곳에 대한 노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본부는 올해 공정을 85%를 목표로 공사 속도를 한층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경전선 사업도 속도를 낸다. 광양-진주(51.5km)간 전철화 사업은 보다 많은 열차수송을 위해 선로용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광양항 물동량 증가와 '순천-부전' 구간의 효율적인 열차운행을 위해 공사가 진행중이다.

경전선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임성리-보성' 건설사업에는 가장 많은 사업비인 4323억원이 투입된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임성리-보성(82.5km) 단선철도 건설사업은 동서(東西)를 잇는 간선 철도망 건설공사로 운행시간을 기존 136분에서 49분으로, 87분 가까이 단축하며 지역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 4742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목포-광주송정'간 고속화를 위해 지난해 개통을 마친 '고막원-광주송정역'과 연결되는 '고막원-목포' 구간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 노반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5년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목포역에서 오송역까지 고속열차 운행이 가능해져 무안국제공항과의 연계가 가능, 향상된 접근성으로 무안국제공항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관계자는 "국민편의 중심의 철도망을 구축하고, 호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국토 발전 생활권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민주당 광주 동남을 이병훈

“광주형 일자리 성공 앞장 설 것”

국회서 차별·불평등 해소 주력
대학생 '학자금 대출법' 개정
AI 인력양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
문화전당 핵심 콘텐츠 개발 필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특히, 광주형일자리 정책과 타 분야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4·15 총선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당선인은 28일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내비쳤다. 광주 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맡아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총괄 지휘했던 그는 '노사 상생형 완성차 광주 공장' 성공을 위해 상임위원회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그는 "완성차 공장의 완공과 양산체제 구축, 혁신적 노사상생문화 정착, 인력채용, 부품사의 광주유치 등 산적한 일들을 지원하기에 상임위 배정은 산자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단장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산과 역할을 한 경험도 강조하며 "문화콘텐츠산업 등이 모두 산자위 소관 사업들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정상적 사업추진에 우리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이다"면서 "광주가 나아가 도시의 모습도 문화를 토대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회 문광위의 역할은 매우 클 것이다. 전당의 정상적 운영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우선 역점을 둘 법안에 대해서는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것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을 개정해야 한다. 해마다 63만명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 정부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대출을 해주는데,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하고 나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면서 "졸업 후 취업준비기간 동안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원금은 취업 후에 갚아도 되지만 이자는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자부담이 매년 200만원으로 적잖아 부담되는 우리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이다"면서 "광주가 나아가 도시의 모습도 문화를 토대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회 문광위의 역할은 매우 클 것이다. 전당의 정상적 운영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의해 매년 거둬들이는 이자수익이 약 24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될 때까지 이자를 감면해주고 자적요건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호남정치 복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호남지역 당선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본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당선인들이 힘을 합쳐 자기 지역에 만연하지 않고 광주 전체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함께 공약하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또 광주 현안사업인 AI와 문화전당 활성화에 대한 해법도 내놓았다. 그는 "AI는 향후 모든 제조산업과 문화산업, 의료산업의 기반산업이 될 것으로 본다. 이를 활성화하려면 도시 내에 전반적인 AI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력양성을 필두로 스타트업 기업의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존 산업체제와 헬스(의료)체제 등과 연계해 체질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핵심이다. 광주 원도시는 제조산업기반이 거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토대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그 핵심이 전당인데, 현재 전당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당이 광주시민으로서 더 사랑받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술적으로 고차원의 창작품과 함께 대중적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과 프로그램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태양의 서커스'와 같은 핵심 콘텐츠의 개발도 필요하다"며 "현재의 운영체제로는 창작과 대중화라는 다층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이제 21대 당선인들이 힘을 합쳐 지원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형일자리 지역 노동계 복귀하라” 전남공고, 자연과학고, 광주공고 등 광주지역 13개 직업계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지역 노동계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모든 출생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

광주혁신추진위 저출산 대책 권고

시장 직속 광주 혁신추진위원회는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을 권고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혁신추진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출범 이후 16번째 권고로 저출산 대책을 요구했다.

인구정책 중·장기 대책 수립·시행, 생애

주기·대상별 지원 강화, 사각지대 없는 사회 돌봄 체계 마련,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4개 기본방향에 따라 29개 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추진위는 미래 인구 예측 모형을 설계해 모든 정책을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방향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특구 기술·인재 패키지 지원 신성장 동력 확보

시-재단 기술사업화 협력 기술 등 지원 기업 성장 촉진

광주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 연구개발특구본부는 28일 "광주특구 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특구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을 시행하고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5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혁신기술-인재 패키지 사업화와 첨단기술기업 후보기업 발굴 및 컨설팅, 특구 교류협력 사업 등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혁신기술-인재 패키지 사업의 지원 사업은 광주특구 내 기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 5개 기업에 1억원 내외의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광주특구 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 이수자를 채용한 기업은 유망 공공기술 이전과 사업화(R&B)D) 과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통해 기업 현황을 분석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 등도 지원하며, 기업 수요에 맞는 특허, 회계, 법률, 제조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후속 성장 지원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은 오는 29일 공고하며, 6월 5일까지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

지원기업 모집공고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와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특구본부(603-5022)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